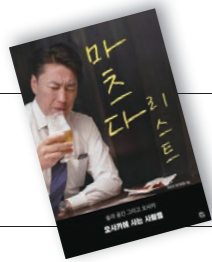


### 잠들지 않는 도시 오사카, 그 미식의 찰나

사람과 요리, 술이 있는 공간에 대한 묘사



마츠다 리스트

마츠다 아키히로 지음, 용감한 까치, 2인2000원

어딜 가든 무조건 첫 잔으로 마시는 나마비루부터 집마다 풍미가 다른 하이볼과 밤이 깊어질 무렵 생각나는 진토니 등 마츠다 부장의 술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다. '마츠다 리스트'는 사케에 대해 지나치게 진심인 중년 오지사의 이야기를 술과 어울리는 '일본어 명언'을 곁들여 소개한다.

오사카의 진짜 밤이 시작되는 퇴근 시간. 관광지에서 '평범한 오사카'로 돌아오는 그곳에는 짙디짙은 밤과 그 밤을 더욱 빛나게 하는 '공간'이 있다.

△별이 무수히 내리는 노상 점포 △세련된 레트로 J팝에 몸을 맡긴 채 서서 마시는 타치노미야 △집에 가는 길에 들려 한 잔하는 요리미치 △무한대로 밤새 마실 수 있는 노미호다이까지 그곳에는 사람이 있고 요리가 있고 술이 있다.

그동안 오사카에서 라멘·타코야키·스시

만 먹고 왔다면 마츠다 부장이 소개하는 북어 요리와 전설의 스타가 좋아했다는 세이로무시 냄비 요리에 도전해 보자. 한입만 먹어도 든든한 미즈타키와 진한 진토니와 즐기는 악어 스테이크는 어떤가.

1년 전부터 예약해야 하는 일본 평점 1위 이자카야와 계절을 먹는 일세버섯 텐푸라까지 일반 여행자들은 모르는 '진짜 오사카 미식 기행'을 만날 수 있다. 사람들이 SNS에서 소개한 맛집에 줄을 설 때 마츠다 부장의 진솔한 기행문에 귀 기울여 보자.

저자인 마츠다 아키히로(松田明浩)는 10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오사카에서는사람들TV'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 이름은 전명호. 한국에서 초·중·고등학교와 군대까지 마친 후 지금은 오사카에 살고 있다.

임유이 기자lye@skyedaily.com

### 노예·테러리스트... 흠을 먹는 노인의 과거

분단국가에서 여덟 가지 인생을 산 사연



이름 없는 여자의 여덟 가지 인생

이미리내 지음, 정해영 옮김, 위즈덤하우스, 1만8800원

영미권에서 출간되자마자 화제를 모았던 '8 Lives of a Century-old Trickster'가 '이름 없는 여자의 여덟 가지 인생'으로 번역돼 출간됐다.

한 요양원의 치매 환자 구역에는 흠을 먹는 노인 '목 할머니'가 입원해 있다. 목 할머니는 요양사에게 부고를 써 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요약하는 '여덟 단어'를 들려준다.

노예·탈출 전문가·살인자·테러리스트·스파이·연인·어머니... 일곱 개까지 말한 목 할머니는 비어 있는 숫자를 채우기 위한 긴 이야기를 시작한다.

"난 일본 사람으로 태어나 북한 사람으로 살았고 이제 남한 사람으로 죽어가고 있지." 목 할머니는 살면서 가졌던 세 개의 국적과 살아남기 위해 바뀌어 했던 여덟 가지 정체에 관해 고백한다. 일제강점기 평양

근처의 농촌 마을에서 태어난 주인공은 어머니의 눈을 고쳐 주겠다는 말에 속아 인도네시아 스마랑의 '위안소'로 끌려간다. 미군의 개입으로 탈출에 성공했지만 이내 한국전쟁이 터지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전쟁고아들의 종착지 부산 미군 부대 근처 '낙점자' 수용소 명키하우스에서 일하게 된다.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10년 동안 실종되었다가 어느 날 돌아와 일본어에 영어까지 유창하게 하는 목 할머니를 누군가가 당국에 신고한다.

저자인 이미리내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라 20대 초반까지 한국에서 보냈다. 성인이 되어 홍콩에 거주하며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미국의 대형 출판사 하퍼콜린스와 파격적인 선인세 계약을 맺으며 영미권 출판 시장에 등장했다.

임유이 기자lye@skyedaily.com

# “삶은 불완전함과 함께 사는 것”

임유이 기자의 **책강내강**



살아가라 그뿐이다

대니얼 클라인 지음



에피쿠로스

쇼펜하우어

사르트르

니체

삶이 그대를 속이고 있다면 현명한 철학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괜찮은 해법이다. 신간 '살아가라 그뿐이다'는 일상에서 접하는 불안·열매감·걱정부터 진로·사랑·죽음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굵직한 국면들을 39가지 철학 명언과 함께 고민한다.

저자는 '철학계의 우디 앨런' '타고 난 철학 농담꾼'으로 불리는 대니얼 클라인. 팔십 평생 노트에 기록해 온 주옥같은 명문장을 자신의 인생 경험과 버무려 실득력 있게 설명한다. 우리가 염세주의자로 알고 있는 쇼펜하우어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눈으로 보면 초라함을 극복하게 해 줄 좋은 수단이 된다. 저자는 지루할 땐 니체를 읽고 도전이 망설여질 땐 존 바스를 읽으라고 권한다.

사는 게 힘들다면 최소한의 쾌락을 탐하라. 나만 힘든 것처럼 느껴진다면 에피쿠로스의 조언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갈구하느라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14쪽)

신중한 쾌락주의자·합리적인 쾌락주의자로 불리는 에피쿠로스는 기원전 341년에 태어났다. 그는 음주나 섹스가 주는 쾌락은 불쾌감을 동반하기 때문에 삶에 불이익을 준다 하여 멀리하고 경계했다. 그때부터 음주는 말실수와 분쟁을 부르고 섹스는 권태와 질투를 불렀던 것이다.

에피쿠로스가 추구하는 것은 '몸에 괴로움이 없고(아포니아) 영혼에 동요가 없는 상태(아타락시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통이 제거될 만큼의 아주 작은 분량의 쾌락이었다. 이를 위해 그는 빵과 물만으로 만족하고 살았다.

에피쿠로스에서 한 발 나아간 철학자가 쇼펜하우어다. '고통이 없으면 고통은 더 늘어난다'고 믿었던 그는 '염세주의 연구'

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 세상이 호화롭고 편안한 낙원이자 젓과 풀이 흐르며 모든 사람이 어려움 없이 자신의 짝을 찾을 수 있는 곳이라면 인간은 지겨움으로 생을 마감하거나 스스로 목을 매달 것이다.”(43쪽)

쇼펜하우어의 냉소적 명언 “삶은 전자

성으로 정의될 수 없다. 토스터는 빵을 굽기 위해 만들어졌고 그 기능이 토스터의 목적이자 본질이다.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근본적 특성과 목적을 만들 뿐 아니라 이를 도중에 바꿀 수도 있다. 따라서 인간에게 결정적인 불변의 본질이 있다고 말하는 건 아

하려 든다.

“당신은 한 집안의 가장이야. 본분을 잊지 마.”

물론 '아내' '가장'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일은 의미가 있지만 그게 원래부터 정해져 있는 불변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을 인간이 아닌 대상으로 격하시키는 것이라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 인생이 흔들린다고 느낄 때 참고할 만한 39가지 명언 소개

주옥 같은 명문장과 인생 경험으로 녹여낸 설득력 명쾌 “지루할 땐 니체를, 도전이 망설여질 땐 존 바스를 읽어라”



운동을 한다. 고통과 권태 사이에서”는 세상이 고통과 권태로 가득 찼다고 해서 살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쾌락의 기대 수준을 낮추라는 조언이다.

결론적으로 “극도로 비참한 상태에 놓이지 않기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은 행복해 질 거라는 기대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이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저자는 가장 짧은 말로 철학적 입장 전부를 요약하는 대화가 있다면 사르트르의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가 우승 트로피를 차지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사르트르에 따르면 이 세상 모든 사물(예를 토스터)과 달리 인간은 자신의 특

무 의미가 없다. 인간은 우선 존재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창조하기 때문이다. '선존재 후창조'는 토스터 따윈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인간의 특질이다.

사르트르는 인간 고유의 잠재력을 설명하면서 그 결과에 책임을 질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우리는 때때로 그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신을 대상화하는 함정에 빠진다.

“이게 나야. 난 원래 이래. 그렇게 타고난 걸 어떡해!”

“내가 담배를 피우는 건 쉽게 중독되는 성격 때문이야.”

이런 말은 스스로 자신을 만들어 갈 책임을 벗어 던지고 본질을 실존 앞에 둔다. 심지어 어떤 이는 타인의 본질마저 규정

불완전함과 함께 가기

저자는 삶의 정체기를 맞이했다면 니체의 말을 기억하라고 전한다.

“존재를 가장 보람 있게, 가장 즐겁게 누리는 비결은 위험하게 사는 것이다.”(71쪽)

“완벽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정작 아무것도 결단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 존 바스의 조언이 도움이 된다.

“다수의 탐나는 선택지를 마주했을 때, 나머지 전부의 가치를 합친 것과 비교하면 어떤 ‘한 가지’ 선택도 오래 만족스러울 수 없다.”(141쪽)

어떤 철학자도 인생에 대한 완벽한 답을 알려 주진 않는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환경이 변하고 철학자 개인의 신념도 변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무리 좋은 조언을 듣는다고 해도 우리의 삶 역시 항상 지혜로울 수는 없다.

인생의 목표는 불완전함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그래서 랠프 월도 에머슨도 우리 대부분이 “언제나 살아갈 준비를 할 뿐 정작 삶을 살지는 않는다.”(19쪽)고 하지 않았던가.

철학은 정답을 알려 주지보다 불완전함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쉽지가 않은 연료를 공급하는 에너지 저장고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임유이 기자lye@skyedaily.com

# 고전, 당신의 미래를 바꾼다

황종택 칼럼 신온고지신3

고전을 통해 만나는 현대인의 치인치세(治人治世)의 해법

고전에는 삶의 지혜가 보석처럼 박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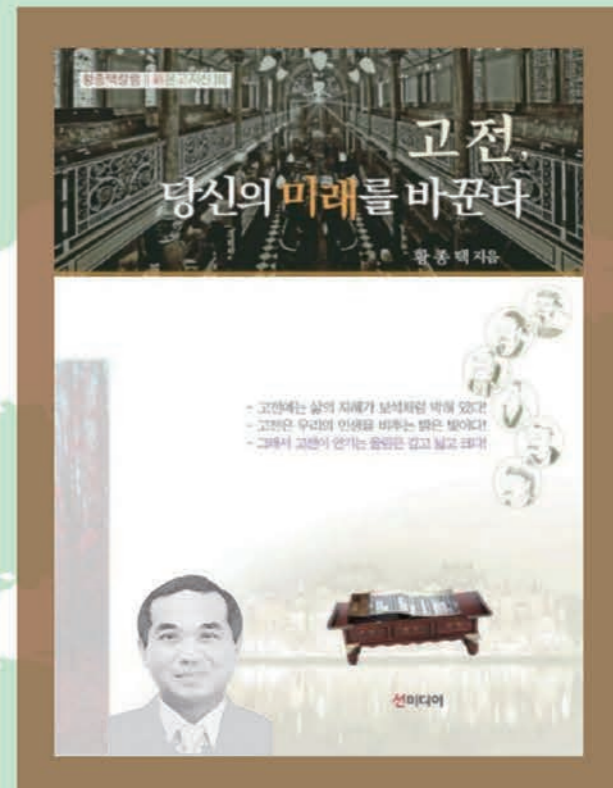
고전은 인생을 비추는 밝은 빛이다!

그래서 고전이 안기는 울림은 깊고 넓고 크다.

“총체적 도덕성 상실의 시대, 고전을 통해 그 문제점들을 들여다 보고 해법을 제시하다!

고전에는 오랜 역사성과 더불어 세상을 관조함에 심오한 깊이가 있다. 고전은 고금을 관통하는 고귀한 진리이며, 치인치세(治人治世)의 도와 생의 희로애락(喜怒哀樂)의 만상을 오롯이 품고 있다. 고전은 우리 인생을 밝게 비추는 지혜의 빛이다.

‘고전, 당신의 미래를 바꾼다’는 언론인 출신 인문학자인 저자가 날카로운 기자적 시선으로 들여다 본 사회적 문제점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통해 그에 걸맞은 고전의 경구와 지혜를 현 시대인들에게 맞게 해석해 놓은 글 모음이다.



황종택 지음 · 선미디어  
값 14,000원